

영조대 만민 교육 이념의 실천과 동몽의례*

김지영**

〈차 례〉

- 머리말
- 영조대 동몽학 내실화의 모색과 童蒙禮講의 복구
- 영조대 후반 親臨童蒙講의 실천
- 정조대 동몽의례의 계승
-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凡民에 대한 교육을 공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중종대 이래 童蒙學의 전통을 재건하려고 실행된 영조대 동몽강 의례를 살펴본다. 영조 즉위 당시 활발한 동몽교육의 기억은 17세기 후반에서 멈춰 있었다. 각 童蒙敎官들이 가르치는 학생 수는 3~15명에 불과했고, 동몽교관은 6품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만 여겨졌다. 귀한 집 자제일수록 동몽교관에게 가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국가의 동몽학은 침체되었다. 영조는 우선 동몽예강 복구를 시도했다. 동몽예강은 동몽교관이 실행하는 아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동몽교관들이 가르치는 아동들과 함께 예조에 오면, 배강과 제술을 통해 아동들을 시험했다. 1743년(영조19) 동몽예강을 한달에 한번씩 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예강 복구 이후에도 동몽학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 영조가 선택한 것은 親臨童蒙講 의례였다. 친림동몽강은 1758년(영조34) 2월 창경궁의 거려청에서 처음 실행되었고, 영조 재위 기간동안 총 41회의 친림동몽강 의례가 열렸다. 국왕이 선도하는 특별한 의례는 동몽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어린 학생들이 교관에게 가 배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교관들도 착실하게 강학을 실시하게 되었다. 영조대 친림동몽강 의례는 정조대로 이어졌다. 凡民까지 포괄하는 교육에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은 지속되었지만, 교육입국에 대한 이상은 포기되지 않은 채 19세기의 과제로 남겨졌다.

[주제어] 童蒙學, 공교육, 童蒙敎官, 童蒙禮講, 親臨童蒙講, 만민 교육

* 이 논문은 2023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주자학의 학문의 방법을 밝힌 『대학』에는 이상적 교육의 방식으로 “집집마다 지역마다 모두 학교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 8세에 이르면 모두 小學에 들어가 배우고, 凡民 가운데 뛰어난 자는 大學에서 배우는 것”을 꼽았다. 국초에 이미 조선은 군현마다 학교를 세워 교수와 훈도가 凡民 이상의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했고, 그 중에 준수한 자제를 선발해 대학에 보내는 제도를 만들었다.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의 凡民은 관직에 나갈 권리, 과거에 응시할 권리와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공교육 수혜권을 가졌고,¹⁾ 각 지역의 수령들은 관할 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호구를 늘리고 송사를 간략하게 하고 세금을 고르게 하는 것 외에 학교를 일으켜[興學校] 공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국초의 이상이 다시 무더졌을 때 至治主義를 내세우며 강한 개혁을 시도했던 16세기 사림들은 보다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 집집마다 지역마다 가르치는 곳을 만들고, 8세 이상의 아이들을 가르칠 제도를 현실화하는 방법을 고심했다. 이들이 주자가 찬집한 동몽교육 교재인 『소학』을 보급하려 했던 것은 ‘가르쳐 이르게 하는’ 주자학의 지치주의 개혁을 조선 땅에서 실현하려는 실천적 의지의 표출이었다.²⁾ 양난 이후 위기에 빠진 조선을 다시 세울 방안을 제시할 때 군사, 재정 분야의 개혁론 뿐 아니라 교육을 개혁하는 문제는 빠지지 않았다. 『소학』 교육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였고 동몽 시절부터의

1) 조선시대 양인 이상 신분층이 가졌던 공교육 수혜권을 포함한 공민권과 위정자들의 공민권 보호 의지에 대해서는 유승원, 『사대부시대의 사회사』, 역사비평사, 2020, 69~72쪽 및 94~107쪽 참조.

2) 이태진, 「사림과의 향약보급운동: 16세기의 경제변동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4, 1983.
 윤병희, 「조선 중종기 사풍과 소학, 신진사류들의 도덕정치 구현과 관련하여」, 『역사학보』 103, 1984.
 김항수, 「16세기 후반 사림의 경제론 - 성리학적 학문체계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 사상과 문화』 6, 1999.
 윤인숙, 「소학의 성격과 정치론, 그 적용 - 조선전기 사림과의 정치이론과 적용」, 『사림』 35, 2010.
 윤인숙, 「16세기 소학 언해의 사회정치적 의미와 대중화」, 『동양어문학』 58, 2012.
 윤인숙, 『조선전기의 사림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6.
 정호훈, 『조선의 소학_주석과 번역』, 소명출판, 2014.

교육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³⁾ 조정에서는 중종~명종대에 마련된 여항의 小民 교육 제도를 다시 실현하는 일이 모색되었고,⁴⁾ 산림들과 재야의 학자들도 다투어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 사학의 童蒙訓導[동몽교관]와 지방 각 고을의 학장 등의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사대부와 범민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왕의 교육사에서는 16~17세기를 향촌 사족들이 상당한 경제력을 토대로 서원, 서당 설립을 주도하며, 재지 권력을 구축하려 했던 시기로, 18세기 이후를 사족 이하 계층이 상업 또는 소농경영을 통해 마련한 경제력을 토대로 서당 설립과 운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시기로 해석하며 사회경제적 토대와 계급적 이해관계, 교육 활동의 역사를 긴밀하게 연계해 고찰해왔다.⁵⁾ 이러한 입론에서 성리학자들이 공유했던 ‘누구나 배워 이를 수 있다’는 기본 신념은 종종 무시되어 왔고, 가르쳐 세상의 풍속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이 축적된 힘으로 아래로부터 사회를 바꿔 나간다는 예교론 역시 신분질서를 내면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이자 지배의 도구라는 차원에서 주로 해석해왔다.

물론 학교 제도, 과거 제도, 학을 중시하는 문화 등을 더 쉽게 활용해 기득권을 강화하고 세습화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비판과 성찰은 꼭 필요하다.⁶⁾ 다만 조선시대 지식인들 스스로가 기득권 재생산의 장이 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공유하고 비판했던 것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연구 시야도 절실하다. 예를 들어 17세기 범민 이상에 대한 공교육 개혁 의제는 金堉 등 조정 관료나 宋浚吉과 같은 산림 학자, 반계 유형원 같은 재야의 개혁적 실학자, 목민관들이 함께 고민했던 바였다.⁷⁾ 18세기 관

3) 정호훈, 「조선 후기 소학 간행의 추이와 성격」, 『한국사학보』 31, 2008.

4) 2장 1절의 서술 참조.

5)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2.

6) 조선 초의 이상주의, 16세기 개혁가들의 이상주의, 17~8세기 개혁가들의 이상주의를 말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 간극을 의면하거나, 말로만 이상을 말했던 지식인들의 위선을 옹호하거나, 몇몇 그럴듯한 사례를 부조적으로 강조해 조선시대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조선에는 그런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많은 민간의 실천가들이 있었고, 그 이상이 현실의 위세에 눌려 무시되고 사라져갈 때 이를 다시 환기하고 다시 동조했던 실천들이 과거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우리 문화의 색깔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학 교육 개혁론을 국가의 집권적 지배력 강화 차원 또는 국가-향촌사족-서민의 다양한 이해를 절충해야 했던 목민관의 실천 등의 차원에서 이해해본 소극적 해석을 넘어 교육을 통해 민의 정치사회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조선을 재건하려는 아니었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 널리 알려진 영조의 소학 강조 역시 군사를 자임하는 군주의 도덕적 권위 제고 차원, 군주 권력의 강화라는 권력적 차원의 해석을 넘어 공교육 개혁 의제와 연관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⁹⁾

본 연구자는 정조대 『太學志』 간행과 대학 제도 및 의례 정비를 고찰한 연구에서 제도화된 학교들이 조선을 위한 제대로 된 인재를 길러내는 장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성하고, 대학이 범민 이상의 교육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¹⁰⁾ 정조대 제시된 공교육 기관으로서 성균관의 역할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중종에서 선조대 초반까지 제안되었던 교육개혁 어젠다들을 재확인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고 보았다. 17세기의 교육 개혁론과 영조대 교육 개혁론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문제의식을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만민 교육 이념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국가의 동몽학 제도를 재건하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영조대에 시작된 서울 지역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궁궐 내 의례 행사를 다루고자 한다. ‘親臨童蒙講’ 즉 국왕이 직접 참여하는 어린 학생들의 공개 수업이라고 명명된 특별한 의례는 영조대 중반에 이르러서 시작되어 영조 말년까지 계속되었고, 정조대까지 이어졌다. 처음부터 왕이 8살~12살짜리 어린 학생들의 수업까지 참여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큰

7) 정순우, 「제3장 17세기 국가의 동몽교관 운영과 사학 정책」, 『서당의 사회사』, 2012.

8) 조선 후기 서원이 본래 교학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면서 국가, 향촌사족, 서민층의 다양한 이해를 수렴해야 했던 지방관들에 의해 다양한 교육 진흥책들이 모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만조, 「조선 후기 鄉村敎學振興論에 대한 검토」, 『조선 후기 서원 연구』, 집문당, 301~326쪽 참조.

9) 윤정, 「숙종~영조대 세자 교육과 소학」, 『규장각』 27, 2004.

이정민, 「18세기 국왕의 『소학』 교육 강화와 성격」, 『한국계보연구』 6, 2016.

10) 김지영, 「학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대학 예제의 정비」,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관심을 갖고 동몽교육 진흥과 개선을 목표로 이같은 새로운 의례 행사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친림동몽강을 실행하기 이전부터 동몽학 재건이 조정 논의의 의제로 다루어졌고, 실제 친림동몽강을 실행하게 되면서는 더욱 생생하게 동몽교육의 실상들이 기록에 담겨졌다. 이러한 자료들을 면밀하게 따라가면서 영조대 당시 동몽교육의 실상, 친림동몽강 실행 이전 동몽교육 개선 노력, 범민 이상의 아이들에 대한 공교육을 표방했던 조선의 동몽학 전통을 재건하기 위해 시행된 친림동몽강 의례, 정조대의 계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영조대 동몽학 내실화의 모색과 童蒙禮講의 복구

1) 영조 즉위 이전 조선 동몽학 전통의 계승 노력

선행 연구는 전쟁 이후 농촌 경제의 타격, 기존 윤리관의 파괴, 신분 질서의 문란 등 향촌 사회 전반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 교육체제 정비를 시도했으며, 17세기 국가의 동몽교관 제도 운영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소산이라고 보았다.¹¹⁾ 이러한 국가의 문제의식을 보여준 전쟁 이후 첫 번째 사료로는 1600년(선조33)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가 거론된다. 이 상소에는 ‘난리 이후 문교에 관계되는 것 폐기된 채 시행되지 않은지 오래’, ‘보도하는 방법은 어려서 가르치는 것이 제일’, ‘반드시 제때 교육시켜야만 성취시킬 수 있는 것’, ‘근래 서울 어린이들 가운데 총명하여 가르칠만한 아이들이 있어도 나아가서 배울 선생이 없다.....동몽훈도를 평시의 예에 따라 다시 세워 용동시키자’는 내용이 들어있다.¹²⁾ 서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전쟁 전에 있었던 동몽학 제도를 다시 세우자는 논의이다.¹³⁾

11) 정순우, 위의 책, 2012, 145쪽.

12) 정순우, 위의 책, 145쪽; 『선조실록』 권122, 33년 2월 10일(갑신).

13) 『경국대전』에는 종 9품 체아직 동몽훈도직에 대한 규정과 ‘사적으로 가르치는 동몽훈도(私敎童蒙訓導)’의 근만을 평가해 실적이 있는 자를 매 도목에 보고해 서용하라는 내용이 있다. 대부분의 동

중종대 여항의 소민들을 가르치기 위해 동몽학을 세우려던 노력은 1546년(명종1) 四學 및 동몽학에 대한 절목으로 귀결되었다.¹⁴⁾ 서울의 士族과 凡民의 자제 중에서 8~9세에서 15~16세에 이른 자를 모아 놓고 먼저 『소학』을 가르쳐 구두를 알고 문리를 터득하면, 그 다음에 『대학』·『논어』·『맹자』·『중용』을 가르치고 사학에 올려보내게 했다. 예조에서는 고강하여 훈도의 근실함 여부를 살펴 관직을 제수함으로써 가르침을 권장하였다. 외방에서는 향마다 學長을 두고 서울과 마찬가지로 가르친 후 향교로 올리며, 감사는 순행할 때 각 향의 학장 중 근실한 자에게 상을 내리고, 실적을 살펴 중앙에 보고하게 했다.

이와 같은 중종대 이래의 동몽학 제도를 전란 후 다시 복구하려던 것이었다. 실록 사평에서는 “다행히 간원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방도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문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찌 작겠는가. 이런 말을 했는데도 당세에 쓰이지 못했으니 애석한 일이다”라고 해 전란 이후 동몽학 제도가 완전히 재건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건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01년(선조34)에는 자격미달인 동몽훈도 鄭彦訥을 체차 하면서, 학문과 덕행이 있어 존경받을만한 사람들이 동몽교육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참서관인 教授와 참하관인 訓導로 직을 구분했다.¹⁵⁾ 1613년(광해군 5)에도 동몽교수에 책임이 아닌 자를 도태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¹⁶⁾

동몽학을 정비하려는 시도는 반정 이후 광해군대와 다른 정치를 적극 표방했던 인조대에 다시 나타났다. 1625년 예조에서는 생원, 진사 및 경서에 밝으면서 과거 응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훈도로 삼아 5~6개 고을이나 3~4개 고을마다 1명씩 소속시켜 가르치게 했다.¹⁷⁾ 다만 훈도라는 명칭을 천하게

몽 교육은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체아직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를 독려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經國大典』, 兵典, 總論; 禮典, 獎勸). 중종대에는 ‘동몽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시절의 공교육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를 정식화했다.

14) 『명종실록』 권3, 1년 6월 16일(신축) “禮曹啓曰 闔巷小民教誨事 今當磨鍊 而前於四月 外方學校申明節日內 教誨小民之意 備在矣 請令監司 以此勸獎. (하략)”

15) 『선조실록』 권136, 34년 4월 16일(계미)

16) 『광해군일기』 권71, 5년 10월 2일(병술)

17) 정순우, 앞의 책, 148~150쪽.

여기므로 다른 호칭을 쓸 것도 제안했다. 또 선비들을 가르칠만한 역량이 있으면서 관리를 지낸 사람을 각 지방의 提督官으로 삼아서 훈도·향교로 이어지는 지방 교육을 점검하고, 여기에서 길러진 우수한 인재가 과거를 통해 진출할 수 있게끔 했다.¹⁸⁾ 제도 마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실제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대사성이 학교에 직접 가서 가르치고, 제대로 된 동몽훈도를 가려 뽑는 일을 통해 사품을 바로잡는 방안이 계속 모색되었지만, “기습이 계속 떨어져 폐조 때와 다를 바 없다”는 한탄은 계속되었다.¹⁹⁾

병자호란 후에도 서울과 지방의 동몽학을 다시 복구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 논의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어린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 1645년(인조23) 예조판서 김육의 주도하에 서울 4부의 동몽교관 외에 分敎官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외진 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가 스승이 없어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소학』과 『대학』을 먼저 읽어서 孝悌와 禮讓을 익힌 후에 다른 경전과 역사를 배우는 등 동몽 교육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매월 예조 고강 때에 분교관도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고강을 받고, 성취가 많은 자를 교관으로 승진시키거나 다른 보직으로 임용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²⁰⁾

1648년(인조27) 2월에는 팔도에서 『소학』을 교습하고, 교습 후 성취에 따라 상을 내리거나 벌주게 하는 정책을 논의했다.²¹⁾ 서울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 군현보다 작은 단위인 里社 가운데에서 스승이 될 만한 자를 가려 마을의 수재를 모아 『소학』을 교습하게 하고, 수령과 도사가 때때로 다시 시강하여 여러 번 능히

18) 1649년(인조27)에 개성부 동몽교관 2인, 동몽훈도 3인, 한성부 동몽교관을 임명한 기록이 있다.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1월 3일(임술))

19) 『승정원일기』, 인조 7년 3월 18일(갑술), “近來士習如此 故人才不作. 設以館學言之 大司成未嘗一到學宮 教養之方 何自而立乎? 童蒙訓導 亦不可不擇人 而今則置之尋常 士子無由向善 而氣習日趨卑下 無異於廢朝時 近日急務 莫如先正士習 不然而因循度日 則朝廷之上 無由更見清明矣.”

20) 『인조실록』 권46, 23년 11월 3일(신해)

21) 당시 예조판서는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학자관인이었던 浦渚 趙翼이었다.

통한 자는 논상, 불통한 자는 우선 학교의 별을 쓰도록 하지는 논의가 포함되었다. 즉 촌락 단위로 스승을 세워 『소학』을 가르치고, 수령과 도사 즉 지방관이 그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살피는 제도를 제안한 것이다.

동몽부터 제대로 가르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은 1659년(효종10) 2월 송준길이 검토해 정한 <四學規制>에서도 볼 수 있다.²²⁾ 인조대에 마련된 서울과 지방에서의 동몽 교육 강화책의 큰 틀은 유지하였다. 배우기를 원하는 사대부와 범민의 자제가 모두 교육받을 수 있고, 지방에서는 마을마다 서당을 세우도록 한 옛 사목을 다시 따르되, 서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동몽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한양의 동몽 교육을 담당하는 동몽교관의 수를 늘렸다. 즉 사대부와 凡民을 가리지 않고 교육을 행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동몽교관에 추가로 4명을 더 두어 총 8명이 되도록 하며, 이들을 한성부의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등 4부에 각각 2명씩 나누어 보내서 동몽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²³⁾ 종전에 두었던 분교관 4명은 그 제도를 없애고, 대신 三江 지역의 훈장을 분교관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의 동몽을 가르치게 했다. 인조대에는 사대문 밖의 한양, 그중 인구가 밀집한 한강, 용산, 서강 지역 士民 교육을 위해 분교관 제도를 두었는데, 효종대에는 분교관을 임명해서 파견하는 대신에 실제 삼강 지역에서 가르치고 있는 서당 훈장을 분교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시골 마을마다 서당을 세우고 각각 훈장을 정해 가르치도록 했던 예전의 事目을 다시 거행하도록 했다. 훈장은 성균관에서 掌儀를 세울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 공론에 따라 골라 임명한 후 관청에 보고하고, 임명된 훈장을 각 村에 나누어 보내서 각 촌에 사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나아가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령이 때때로 그 학도들을 고강하고, 감사와 도사, 교양관도 직접 가보거나 향교, 서원에 모아 고강하거나 제술하게 했다.

22) 『同春堂集』, 卷3, 疏筭, 「承命論學制筭_己亥二月」; 『효종실록』 권21, 10년 2월 16일(정축)

23) 『효종실록』 권21, 10년 2월 16일(정축) “童蒙教官四員 十分選擇加出 竝前所設 合爲八員 禮曹分差各二員於四部 勿論士夫凡民子弟 一體訓誨.”

실적에 따라 훈장은 호역을 감해주거나 상격을 시행하고 그 중 가장 실적이 있는 자는 동몽교관이나 다른 관직을 주게 했다.²⁴⁾

〈사학규제〉에 따라 조정에서는 새로 徐漢柱, 宋奎禎, 黃世楨, 郭志仁 등 4인을 동몽교관으로 추가로 임명했다.²⁵⁾ 동몽교관은 종9품직으로 시·과 이 하가 받는 체아록을 받았고, 900일의 임기를 채우면 6품으로 승급되었다.²⁶⁾ 모든 제도가 그렇듯 사대부와 범민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상의 동몽학 제도는 본래 의도대로 잘 운영되지 않았다. 특히 동몽학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동몽교관들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이 문제였다. 동몽배들이 돌아다니며 사부를 괴롭히거나 행인들을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서 동몽교관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²⁷⁾

동몽학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예조의 감독 기능을 강화가 주로 거론되었다.²⁸⁾ 당시 동몽교관에게 어린 학생들을 기르는 일을 전담시키고, 예조에서는 한 달에 세 차례 고강해서 실적에 따라 녹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예조 고강이 부실화되면서 실적과 관계없이 녹을 받는 교관이 생기고 교육이 부실화된다고 지적하였다.²⁹⁾ 예조 감독 이전에 동몽교관의 능력을 제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도 있었다. 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생원, 진사, 幼學이었는데, 당시 仕路가 막혀 있는 유학이 세력을 이용해 교관직을 가지려는 경우가 많았다. 교관의 자격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나아가 배우려 하지 않는 폐단을 없애려면, 이름이 드러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면 유학 대신에 생원, 진사를 교관으로 써야 한다고 보았다.³⁰⁾

24) 송준길의 학교 개혁론은 〈四學規制〉로 불린다. 이는 권근의 권학사목, 이이의 학교모범, 조익의 학교절목과 함께 삼대에 비견할만한 학교 제도론으로 꼽혔다. (김지영, 「학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대학 예제의 정비」,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184쪽)

25) 『승정원일기』, 효종 10년 3월 25일(병진)

26) 『續大典』, 吏典, 京官職, 權設職.

27) 『승정원일기』, 현종 5년 11월 27일(갑인)

28) 『續大典』, 禮典, 獎勸, 童蒙. “童蒙教官所訓生徒 每朔三次初十·二十·三十日本曹堂上官齊會 以所讀書考講置簿 以其多少勤慢 憑考殿最.”

29) 『승정원일기』, 숙종 3년 4월 18일(갑자)

30) 『승정원일기』, 숙종 4년 4월 20일(기축)

동몽학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 속에서 효종대 8인까지 확대되었던 동몽교관은 숙종 초 다시 4인으로 축소되었다. 1679년(숙종5) 김석주는 경상도와 전라도 大牧에 교양관을 복설하자는 건의에 반대하며, 서울의 동몽교관도 한 명의 교관이 가르치는 학생이 적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³¹⁾ 서울이나 경상도·전라도 같은 지역에서는 관변의 동몽학보다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았고, 이른바 관변 동몽학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동몽학 축소 논의에 힘이 실렸다. 결국 서울 동몽교관은 임기가 다한 교관 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4인으로 축소되었다. 4인으로 축소된 후에도 예조 강이 부실하게 운영된다거나 교관을 가려 뽑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부실하다는 지적은 계속되었다.³²⁾

동몽교관 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중에도 잘 가르쳐 성과가 있는 교관에 대한 보고도 여전히 등장했다. 관직에 진출한 이들이 어릴 적 스승인 동몽교관에 대한 상소를 올려 나라의 은전을 요청하는 형식이었다. 1700년 전 현감 柳沆이 동몽교관일 때 가르친 유생 중에 급제자가 3인, 생진시 합격자가 13인이라며 전례에 따라 자급을 더해 달라는 상소가 올라왔다.³³⁾ 법전의 禮典 獎勸 항목에 경외 유생을 가르친 스승이, 가르친 이 중에 급제 3인, 생진 10인 이상이 있으면 계문하여 가자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자되었다.³⁴⁾ 1711년(숙종37)에도 사록 신이록 등이 어린 시절 동몽으로 수업 받았던 스승 安健行의 관계를 올려달라는 청이 있었다.³⁵⁾ 1726년(영조2)에는 진사 尹德春 등이 상소를 올려 스승 李志逵를 위해,³⁶⁾ 1727년(영

31) 『승정원일기』, 숙종 5년 8월 3일(을축)

32)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9월 12일(기축); 숙종 37년 2월 2일(신유)

33)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5월 25일(정사)

34)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5월 28일(경신)

35)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4월 16일(갑술)

36) 『승정원일기』, 영조 2년 2월 9일(임신). 이지규는 일찍이 선정의 문하에서 배우고 순유로서 발탁 되어 동몽교관이 되었다. 원근의 어린 선비들이 그의 덕을 흠모하여 책을 끼고 문하에 들어간 이가 백여인에 이르렀다.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종일 가르치면서도 조금도 나태한 기색이 없었고 삼사년 동안 조금도 쇠하지 않았으며 소학과 사서, 육경에 이르기까지 가르칠 때에 반드시 孝梯로부터 시작해서 平治에서 마쳤다. 사장과 한목 등 말기도 그 사람의 재품의 고하에 따랐기에 그 가르친 바가 각각 마땅함이 있었다. 權穎, 權績, 尹德隣, 李聖魯, 李挺膺, 尹德春, 李德普, 李垞, 尹德純, 尹德新, 尹明彥, 申鎭九, 崔象岳 등이 소과 혹은 대소과에 합격했다.

조3)에는 문학 황정 등이 스승 李鳳年을 위해 같은 은전을 청했다.³⁷⁾

영조 즉위 이전 이른바 소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동몽학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내실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지방의 학장/훈장-교양관, 서울의 동몽교관-예조고강으로 동몽을 가르치는 관직과 고과 제도를 만들어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표명했다. 교육 내용도 문자와 문장, 지식 교육과 함께 가정과 마을 안 일상에서 효제를 실천하며 사회적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끈다는 큰 원칙 위에서 정비되었다. 국가의 동몽 교육 제도는 “집집마다, 마을마다” 있는 학교인, 서당과 같은 민간의 동몽 교육 실천들과 연계하며 이를 독려하는 것이기도 했다. 1706년 동몽교관 梁處濟는 권력가에 빌붙어서 교관직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를 동몽교관에 썼던 徐宗泰는 그의 학문과 함께, 사적으로 학동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 때의 실적 때문에 교관에 추천되었다고 밝혔다.³⁸⁾ 동몽교관을 천거로 임용할 때 서당 교육 때의 실적과 평판을 반영하는 것은 민간의 자발적 학교 운영을 격려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문제는 동몽 교육에 모범을 보이고 민간의 동몽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몽 교관제도의 부실한 운용이었다.

2) 1743년 동몽예강 복구 및 정식 마련

영조는 즉위 이래 연석에서 자주 동몽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기왕에 운용되고 있는 동몽교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에 관심을 기울였다.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동몽예강 제도였다. 동몽예강은 나라의 교육을 주관하는 예조에서 동몽교관이 실행하는 아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37) 『승정원일기』, 영조 3년 7월 18일(임신). 이봉년은 인현왕후가 폐서인된 후 과거를 포기하고 오직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고, 동몽교관이 되어서나 직을 그만둔 후에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인도했다. 무엇을 물어보면 바로바로 응대했고, 비록 어리석고 유치한 아이들이라도 자상하게 이끌어 주어서, 현우와 재주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그 가르침을 받아, 전후로 그 문하에 이른 자를 계산해 보면 거의 100여 인이나 되었다. 이 중 과거에 급제한 자가 6인, 성균관에 입학한 자가 24인이었다.

38)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8월 17일(임인)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예조의 동몽 월강을 가리킨다. 서울의 동몽교관들이 가르치는 아동들과 함께 예조에 오면, 예조 관리가 각 아동들에게 학습 내용을 질문하고 아동들이 직접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1728년(영조 4) 鄭錫三은 동몽예강의 부실한 실태를 지적했다. 본래 동몽예강은 한달에 2~3회 시행하도록 했지만, 갑진년[1724, 영조 즉위년] 이후 거의 시행되지 않아서 동몽교관이 본래 설치된 의의를 다하지 못하고, 단지 6품 관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만 이용된다는 비판이었다. 영조는 매번 하교하고자 했던 일이라며, 예조에서 규례대로 달마다 시강하고, 근태를 살펴 태만할 경우 정해진 달 수를 채우더라도 승진시키지 않는 정식을 시행하도록 했다.³⁹⁾

영조는 조선에서 동몽교관을 둔 것을 ‘집에 塾, 주에 序, 나라에 庠’을 둔 옛 제도와 같이 하려던 것으로 이해했고, 어린 시절부터의 가르침이 매우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동몽교관 제도가 文具 즉 허울좋은 제도로만 머물고 가르쳐 깨우친다는 본의를 다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다시 예조가 동몽예강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⁴⁰⁾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몽교관은 대표적인 ‘怠官’ 즉 나태하고 부실한 관직으로 불렸다.⁴¹⁾ 국왕까지 나서 강학을 제대로 하도록 강조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성 자제들이 책을 끼고 찾아가 글자를 묻는 일이 없어졌다는 비판이 잇달았다.⁴²⁾ 새로운 차원에서 동몽학의 부실 원인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시속이 예전과 달라 사대부 자제들이 교관에게 가서 배우고 싶어하지 않으며, 그래서 교관들이 학도를 모으려 해도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조는 이러한 진단을 일축하며 시속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고 했다. 동몽교관 문제가 제기될 때면 “돌을 들지 않으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즉 다른 핑계대지 말고 있는 제도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영조가 동몽교관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⁴³⁾

39)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월 15일(병인)

40)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0월 21일(무술)

41) 『승정원일기』, 영조 6년 5월 10일(정축);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5월 15일(갑인)

42) 『승정원일기』, 영조 7년 9월 21일(신사)

한편, 동몽교육의 내용에 대한 지적도 여전했다. 글자 공부나 과거 공부만이 아니라, 사치와 경쟁, 이기주의로 물든 시속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학』으로 동몽들의 학습을 권면하고, 예강을 할 때에도 『소학』으로 강을 받는 방안이 모색되었다.⁴⁴⁾ 송인명은 세도와 인심이 날로 비루해지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여항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동몽 교관이 소학으로 동몽들을 가르치고, 예조 예강에서도 『소학』으로 강을 받도록 했다. 영조 역시 『소학』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지만, 그를 위해서라도 강학이 활성화되어야 했다.⁴⁵⁾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은 교관에게 나아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당시 동몽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알려졌던 趙龜命을 둘러싼 대화를 보자. 영조는 조귀명이 아주 착실하게 동몽들을 모아 가르쳐 학도들이 크게 발전해 실효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래 선비들이 공자까지도 존경하는 마음이 적은데 조귀명이 어떻게 공부하게 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金尙重은 교관의 진심어린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했다. 성의가 없다면 사람마다 제 자식을 아끼는데 아이들이 시간이나 보내고 놀고 오도록 하겠느냐는 것이었다.⁴⁶⁾ 교관의 학문 소양에 더해 ‘열심히, 그리고 성의있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분석이 계속되다 보니 여전히 교관의 인선과 성실함에 대한 점검 등이 조정의 대책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교관 인선의 기준을 점검하기도 했다. 조귀명이 교관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성과를 거둔 것이 학문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문학으로 이름이 있거나 경학 공부를 해서 평범한 과거 공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등 교관으로서의 자질을 거론한 것이다. 선조대나 인조대처럼 동몽교관에 산림으로 학

43) 『승정원일기』, 영조 9년 12월 23일(경신)

44) 영조대 소학 교육 중시에 대해서는 정호훈, 「조선 후기 소학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한국사학보』 31, 2008; 이정민, 「조선시대의 소학 이해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3; 윤정, 「숙종~영조대의 세자 교육과 소학」, 『규장각』 27, 2015 참조.

45)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30일

46) 『승정원일기』, 영조 9년 5월 12일(임진); 14년 11월 7일(을묘); 15년 6월 11일(병술). 조귀명은 1732년에 동몽교관에 임명되었다.

식이 있는 사람을 천망하라는 조치는 이런 인식에 기반했다.⁴⁷⁾

교관 인선보다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중시된 것은 예조에서 실시하는 月講의 복구였다. 1734년(영조10) 장령 呂光憲은 동몽교육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⁴⁸⁾

당초 동몽교관을 설치했을 적에, 반드시 해박하고 근실한 선비를 뽑아서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도리를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또 예조로 하여금 교관이 가르치는 生徒案을 보관해 생도 수의 다과를 알 수 있게 하고, 月講으로 근만을 살펴 녹봉을 높이거나 낮추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직임을 맡은 자가 감히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大科와 小科의 방이 나온 뒤에 그 생도안과 대조해서, 입적 유생 중 생도안에 없는 자는 반드시 (합격 명단에서) 빼 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비들도 모두 생도안에 이름을 올리고 서책을 끼고서 가르침을 청했고, 감히 편안히 집에 있을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어른을 공경하고 벼을 사귀는 법과 일상 인간사의 범절에 이르기까지 익숙히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광헌이 제시한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반드시 해박하고 근실한 선비를 뽑아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동몽 생도안으로 생도를 관리하고, 생도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자가 대소과에 합격해도 취소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언제 실시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동몽 생도안과 과거제를 연동시켜 반드시 동몽학에 이름을 두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예조의 월강 제도이다. 예조 월강이 바로 ‘예강’으로 지칭되기도 했는데, 생도에게 背講을 시켜 그 성취를 보고, 그 성취 여부를 동몽 교관의 실적 평가에 반영하였다. 뒤의 두가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동몽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었고, 어린 선비들이 모두 서책을 끼고 학교에 가서 가르침을 청했으며, 인간 관계 속 도리를 배울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동몽학이 침체되면서 ‘世家에서 새로 배우는 선비들이 모두 그 문

47)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3월 26일(임자)

48)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6월 9일(계축)

하에 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여항의 준수한 무리들 또한 그 업을 폐하기가 일쑤'가 되었던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도안과 예강 제도를 실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몽학의 두 주체, 교수자와 교습자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우선 동몽예강을 복구하고 정식을 마련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1728년(영조4)에 이미 예강을 실시하라는 조치가 있었지만, 1735년 4월에 동몽교관에 임명된 사람이 1737년 3월에 이르기까지 단 한차례도 예강에 참여한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형해화된 상황이었다.⁴⁹⁾ 예강의 부실과 일정 수의 생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는 직접 연관되었다. 평소 생도의 수는 매 교관당 적어도 20인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⁵⁰⁾ 1741년에 영조는 예조에서 생도 명부도 관리하지 않고 예강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학도의 수와 근만을 점검하라고 명했다.⁵¹⁾ 1742년 10월 “학교의 정사는 어린 시절의 학교를 우선으로 한다. 나라에서 동몽교관을 설치했으니, 그 법제가 헤아린 바가 깊다. 『주역』에서도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는 것[非我求童蒙, 童蒙求我]이라고 했는데 해조에서 예강을 행하지 않다가 혹 실행되면 그 때에만 인원을 충당해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 이 어찌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교관이 가르치고 있는 인원을 확인하게 했다. 확인 결과 교관 李蕃泰가 7인, 尹暲이 10인, 閔百亨이 15인, 宋徽相이 3인을 가르치고 있어 대부분 20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⁵²⁾

이처럼 전반적으로 동몽교육이 부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1743년 1월 동몽예강 관련 정식이다.⁵³⁾ 당시 예조판서였던 吳光運은 예

49)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3월 18일(병오)

50) 『승정원일기』, 영조 16년 5월 15일(갑인)

51)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2월 3일(무술)

52)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10월 26일(경술)

53) 현재 규장각에는 『동몽예강등록』(奎 12970) 1책이 소장되어 있다. 제목과 달리 이 책에는 동몽예강과 관련된 사실이 단 한건도 기록되지 않았고, 영조대 이전 동몽교관, 분교관, 교양관 관련 정책과 즉위 이후 시행된 각종 친림전강의례의 절목들이 수록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책을 1743년 동몽예강 복구시 필요한 절목을 마련하기 위해 예조에서 만든 자료로 보았다. (여영기, 「동몽예강등록과 계해년 동몽예강절목의 재구성」, 『교육사학연구』 23, 2013)

강을 한차례 시행하면서 예강 현황을 파악했다. 예강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으면서 예강 후 동몽들에게 지급할 지필묵 등도 없었고, 예강의 회수나 배강할 교재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였다.⁵⁴⁾ 묘당의 논의를 거쳐 2월 24일에 <동몽예강절목>이 마련되었다. 법전 규정보다 줄여 매달 한차례 시행하고 월말에 보고하도록 했다.⁵⁵⁾

모처럼 마련된 정식에 의해 예강이 다시 시작되었다. 매달 한차례 선생님을 따라 광화문 앞 예조에 들어가 공개수업에 참여하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관 개인적인 이유나 예조 자체의 일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3월 예강부터 동몽교관 宋徵相은 병을 이유로 불참했고, 7월에도 신병을 이유로 가르치는 동몽만을 보냈다.⁵⁶⁾ 11월 예강 때에도 동몽교관 羅蓼이 병을 이유로 불참했다. 윤4월, 6월, 8월, 9월, 10월에는 예조에 여러 일이 있거나 당상 유고 등의 이유로 강을 시행하지 않았다.⁵⁷⁾ 보고 내용을 볼 때 일부 교관이 불참한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1743년 3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6차례, 두 달에 한번 꼴로 강이 시행되었다.

1744년 6월 교관들이 가르치는 생도가 없거나 예강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파직하도록 한 절목에 의해 동몽교관 宋文欽이 처음 파직되었다.⁵⁸⁾ 그는 여러 달 동안 전혀 가르친 실적이 없는데다가 예강에도 참여하지 않아 파직 대상이 되었다. 이후에는 예조 월강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다거나 동몽교관이 예강에 불참하는 일이 보고되지 않았다.

1748년(영조24) 3월 공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사성, 태학 장의, 색장, 동몽교관이 일제히 경희궁 경현당에 모였다. 동몽학을 책임지는 동몽교관으로는 崔普興, 尹啓東, 李度重 등 3인이 참여했다. 영조는 각각 가르치는 동몽의 수를 말하도록 한 후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공경의 자체가

54)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1월 28일(계미)

55)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5월 1일(계미)

56)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3월 14일(무진); 19년 7월 20일(경자)

57)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5월 1일(계미); 19년 7월 1일(신사), 19년 8월 29일(기묘); 19년 10월 1일(경술); 19년 11월 1일(경진)

58) 『승정원일기』, 영조 20년 6월 1일(정미)

있는지 물었다. 동몽교관에게 가서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이전의 풍조가 달라졌는지를 궁금해한 것이다. 동몽교관 李度重은 훈하 동몽 중에 입조인의 자식으로 고 참의 李秉泰의 손자가 있다고 했다. 崔保興은 공경의 자제는 없고 모두 士人の 자식 뿐이라고 했다. 尹啓東은 고양군수 金孝大의 아들이 와서 배우고 있고 나머지는 ‘卑微者’가 많다고 답했다. 이 ‘卑微者’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다만 앞선 이들의 답변과 비교해볼 때 입조인이나 공경 자제, 사인에도 못미치는 신분의 자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영조는 생도와 교관 사이에서 속수례를 하는지, 예강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물은 후 士翫이 오직 어린 시절 어떤 가르침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직의 무거움을 알고 부형보다 엄하게 가르치라고 당부했다.⁵⁹⁾

3. 영조대 후반 親臨童蒙講의 실천

1743년 동몽예강 정식을 마련한 이후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듯 보였던 동몽교육은 금방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왔다. 십 년이 지난 1754년, 동몽교관 安宗茂 · 趙晟 · 洪致元 등이 왕명을 받고 들어오자 영조가 각 교관들이 가르치는 동몽의 수와 교육 내용을 질문했다. 안종무는 童子 5~6인, 冠者 6~7인을 가르치며, 史書 · 經書 · 朱子書를 가르친다고 했다. 영조는 근래에 사습이 부진한 것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임기가 차더라도 관직에 임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치원은 7~8명을 가르치는데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고 『소학』을 곁해 읽는다고 답했다. 한 교관이 가르치는 동몽의 수가 여전히 많지 않았던 것이다.⁶⁰⁾

더구나 교관을 불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근 3년 동안 예강을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조는 전후의 예조당상을 모두 중중

59)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3월 18일(임인)

60) 유척기는 기사년, 즉 1749년 이후로 10년 동안 한차례도 거행되지 않다가 올해 한차례 거행되었다고 했다. (『승정원일기』, 34년 12월 5일(정사))

추고하라며 강하게 질책했다.⁶¹⁾ 예강 복구와 국왕의 거듭 당부한 후에도 동몽교육이 부진한 상황은 지속되었다. 1755년(영조31) 대리청정하는 왕세자에게 좌의정 김상로는 지평李世鉉이 올린 상서 내용을 전했는데, 여전히 동몽교관의 교육이 별로 효과가 없고, 예조 월강 역시 지지부진하다는 것이었다.⁶²⁾ 동몽예강 복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몽교육이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자 영조는 이전에 없던 동몽 의례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1758년 2월 전년에 있었던 인원왕후의 상으로 거려청에 머물고 있던 영조는 동몽교관이 예강 학도를 데리고 들어오게 했다.⁶³⁾ 2월 24일 오시에 동몽교관 안宗茂와 韓警이 예강 학도들과 함께 왔다.⁶⁴⁾ 영조는 먼저 교관들을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교관에게 학도들을 한명씩 불러 들어오게 했고 직접 어린 학도들을 마주하고 배운 바를 물었다.

李彦燾의 아들, 안씨의 아들, 李顯輔의 손자, 李彦默의 아들, 李復淵의 아들, 李哥의 아들, 金鍾協의 아들, 朴聖源의 질자, 閔之烈의 아들, 안종무의 아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다. 11명의 아이 중 李哥의 아이로 지칭한 1명은 양반집 아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는 아이들이 각자 가져온 책에 따라 『대학』 서문, 『소학』 呂榮公章, 『소학』 題辭, 『통감』 등을 읽게 하고 그 읽은 것에 대해 純通, 通, 略, 粗 등의 성적을 매겼다.

이어서 영조는 아이들에게 질문했는데, 주로 『소학』 관련 내용이었다. “소학은 누가 지은 것이냐”, “채소옹대는 어째서 治平의 근본이 되느냐”, “曾氏가 홀로 그 전함을 얻게 된 것은 어째서냐, 經 1장은 증자가 지은 것이냐”, “만일 너의 집 노비에게 비질을 하게 하면 그것 또한 치평의 도리이냐” 등을 질문했다. 영조의 잇단 질문의 취지는 무반 민지열 아들과의 문답에서 분명해진다. ‘이언이 떠들썩하게 일어난다[異言喧豗]’의 의미를 묻고 “소학 공부는 어떤 공부냐”고 물었을 때 아이가 “儒者の 공부”라고 했다. 영조는 웃으며

61)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10월 2일(정미)

62)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2월 2일(병오)

63)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2월 23일(기묘)

64) 인원왕후의 혼전은 창경궁 문정전이었고, 영조의 거려청은 창경궁 환경전 남월랑이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3월 26일(기사)

“네 아버지는 (儒者가 아닌) 虎班인데 너는 그럼 (네 아비의 말도) 異言이라고 여기느냐”고 물었다. ‘이언으로 떠들썩하다[異言喧騰]’는 주희가 쓴 소학제가 중의 구절이다. 본래 문장은 “소학의 가르침이 사라져 마을에는 훌륭한 풍속이 사라지고 세상에는 훌륭한 인재가 드물며 사람들은 이익과 욕심으로 얽혀 다투고, 이단의 말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배워야 할 것이 『소학』에 담겨져 있으며,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는 방법도 어린 시절의 바른 교육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영조는 이 문답을 통해 『소학』을 유자를 위한 책으로 알고 있는 아이에게,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깨우쳐주고자 했다.

가장 답을 잘한 아이는 교관 안중무의 아들이었다. 모두 마친 후 왕이 학도 11명 전원에게 장지 1속과 붓·먹을 내려주었고, 아이들이 왕에게 네 번 절한 후 물러났다. 너무 엄숙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전에 없던 친림동몽강행사를 마친 후 영조는 동몽교육을 잘 수행한 교관에게 상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몽교관을 설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세상은 독서하지 않는 곳이 되었으니 正心, 修身해서 治平에 이를 수 있는가. 지난 날 교관들을 불러 보고, 오늘 학도들을 입시하게 한 것은 보기만 하는 데에서 그치려는 것이 아니다. 교관 안중무의 학도는 단지 읽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니 그 가르침이 근실한 것을 알겠다. 지금 입기가 다 찼다고 하니 다른 상을 줄 것이 없구나. 出六한 후 三曹 낭관직에 바로 임용하도록 하라. 교관 한경은 학도의 수가 많지는 않으나 강독 할 때 행동거지를 보니 하나가 열을 당할만 했다. 특별히 兒馬 1필을 내려주도록 하라.”고 했다. 또 “지난날 칙려한 후 예조 동몽강을 십여년 해왔는데 아직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어찌 신칙한 의의가 있겠느냐. 전후 예조 당상을 종종추고하고 차후에는 착실하게 거행하도록 하라”고 했다. 친림동몽강 의례가 단지 한 때의 불거리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며, 세간에서도 동몽학의 중요성을 인식해 억지로 감독하지 않아도 관련 제도들이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운용되게 하려는데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친림동몽강은 2년 후 1760년(영조36) 7월 25일에 경희궁 景賢堂에서 다

시 열렸다. 동몽교관 鄭志喆, 李龍中, 權彝性이 각각 가르치는 생도들을 데리고 입시켰다. 정지철의 생도 李彭興, 韓興得, 勸曾達, 이용중의 생도 李宗甲, 尹光範, 申惡壽, 姜貴甲, 申墨同, 李墨興, 權樂性, 宋煥應, 李益孫, 권이성의 생도 李商菜, 金曷勤, 閔曾金, 閔應烈, 柳恒謨 등이 차례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책을 읽거나 외고, 이어 왕의 질문에 답했다.⁶⁵⁾ 답변을 잘한 생도들은 주서에게 그 이름을 기록하게 했고, 이어 제술을 할 아이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글을 짓게 했다. 영조는 지난번에는 雜家의 책을 끼고 들어온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모두 소학이나 경전을 가지고 들어왔다며 만족해했고, 이어 주서가 이름을 기록한 9명의 아이들에게 지필묵을 내려주며 “너희들은 읽기와 외기를 잘해서 상을 주는 것이니 더욱 공부에 힘쓰도록 하라”며 격려했다. 또 조정의 독려에 부응해 아이들을 잘 가르친 교관 3인에게 녹피 1령을 각각 내려주었다.⁶⁶⁾

1761년(영조 37) 6월 16일에도 경현당에서 친림동몽강이 열렸다. 전날 전최 중에 동몽교관 李商進이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평가가 있는 것을 보고, 이상진과 그가 가르치는 동몽들을 경현당에 입시하게 했다.⁶⁷⁾ 동몽교육의 모범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격려하려 한 것이다. 李翼晉·柳恒模·李晚祥·趙鵬·黃仁驥·黃仁駟·趙聖鎭·金履錫·李岳徵·李英祚·李岳祥 등 11명이 들어왔다. 동몽들은 『소학』 및 각자 읽는 책을 읽고 글의 뜻을 묻는 질문에 응했다. 강을 마친 후 영조는 처음 군부를 만나는데 각자 어떻게 임금을 섬길 것인지 말하게 했는데, 모두 부모님을 섬기는 도리로 군부를 섬기겠다고 했다. 또 時俗을 따르지 않고 古人의 도를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동몽을 잘 가르친 이상진에게는 녹피 1령을 내리고, 동몽 전원에게 각각 종이 1권, 붓 3자루, 떡 2개를 내려주었다.⁶⁸⁾

65) 첫 친림동몽강과 달리 이 때의 기록에는 가정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 이후 기록에도 아이들의 성명만 나오기 때문에 사인과 민인의 비율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영조대 동몽교관의 생도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범민 이상의 교육을 천명한 동몽학에 공경대부의 자손들까지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다.

66)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7월 25일(정묘)

67)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6월 15일(임오)

68)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6월 16일(계미)

1762년(영조38) 9월에도 친림동몽강 의례를 시행했다. 임오화변이 일어난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뿐인데 동몽강을 한 것이다. 경현당에서 이루어진 동몽강에는 이전과 달리 11세의 왕세손 정조가 함께 했다. 교관 趙鎭憲·李得一·沈以鎭·林象九 등 4인이 동몽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동몽 李榮會가 『맹자』 首篇을 진강하자, 세손더러 글의 뜻을 묻도록 했다. 세손은 “양혜왕은 어찌서 仁義로 묻지 않고 다만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냐고 물었는가”를 질문했다. 또 『소학』 제사를 읽은 동몽 申天老에게는 “이른바 옛날 [古]이란 어느 때인가”, “소쇄옹대지절이 어찌서 치국평천하의 근본이냐”고 물었다. 동몽 申天金이 『소학』을 읽자 “하늘이 명한 性이란 무엇을 말하느냐?”고 물었는데 그가 답을 못하자 영조가 “이 때의 성이 성씨의 성과 같으냐”고 물었는데 같다고 답했다. 이에 세손이 대신해서 “아닙니다. 저 성자는 하늘이 부여한, 타고난 좋은 성품입니다”라고 답했다. 동몽 申玃金에게는 “증자는 어찌서 부모의 뜻을 봉양했다고 하느냐”고 묻자 “반드시 (밥이) 있다고 대답한 것이 부모의 뜻을 좇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강을 마친 후 영조는 『소학』을 읽지 않고 지름길을 구하는 풍조를 다시 지적한 후 열심히 글을 읽어 훗날 동궁을 잘 보필하라고 격려했다. 또 영조는 능통한 10명을 선발해서 종이와 붓, 먹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는데, 韓興得·林玄相이 종이 3권, 붓 3자루, 먹 2개를, 李榮會·申天老·申玃金·李江伊·任宅俊·李潤甲이 각 종이 2권, 붓 2자루, 먹 1개를, 申天金·李禧가 종이 1권, 붓 1자루, 먹 1개를 받았다.⁶⁹⁾

1763년(영조 39) 7월 9일, 왕세손이 시좌한 가운데 경현당에서 친림동몽강을 열었다.⁷⁰⁾ 동몽교관 趙鎭憲·李得一·沈以鎭·林象九이 학도 33인을 데리고 참여했다. 왕세손이 글의 뜻을 물었는데, 외조부인 영의정 홍봉한도 앉아서 구경했다. 강을 마친 후 음식을 내린 후 능통한 아이들에게는 각각 지필묵을 주었다. 또 전혀 문의를 통하지 못한 아이의 교관은 징계하도록 했다. 마친 후 영조는 士夫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과거 공부를 우선해서

69)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9월 23일(임오)

70)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7월 9일(갑자)

『소학』을 읽히지 않거나 『綱目』을 먼저 읽히는 일도 많아서 小科에 소학강을 넣었다며 재차 『소학』 공부를 강조했다. 차후에는 먼저 『소학』을 다 읽히고, 그 다음에 四書를 읽히라고 했다. 또 『史記』를 처음부터 곁해서 읽히되, 예강 때에 경서는 배송하고 『사기』는 임강하라고 지시했다. 배송은 책을 보지 않고 외어 읽는 것이고 임강은 책을 펼쳐놓고 읽는 것이다. 예강 때의 규칙을 정해, 『소학』을 모두 외어서 암송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한 것이다.

1763년 12월 16일에는 경희궁 사헌합에서 친림동몽강을 열었는데, 교관 趙鎭憲·趙鼎鎭·林象九·洪文漢이 동몽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아이들이 모두 『소학』을 끼고 들어와 강에 임해 영조를 만족시켰다. 강을 바친 후 ‘굴이 붉네[橘紅]’으로 출제하여 시를 짓게 했다. 강에서 순통한 金快傑·尹甲說·趙通孫·趙億孫·趙壬祿·尹魯松·尹宗甲·李大快·李甲快·李允甲이 종이 1권, 붓 2자루, 떡 1훔을 받았고, 시를 지은 李勉兢·申七喜·李三貴·金快傑·尹甲說·李億伊도 같은 상을 받았다.⁷¹⁾

1764년(영조 40) 3월에는 이전에 입시한 동몽 외에 다른 동몽들을 데리고 오도록 해 경현당에서 친림동몽강을 시행했다. 각자 읽은 책에 대한 강을 바친 후 세손이 문의를 물었고, ‘한식날 동풍에 왕궁의 버들이 기울었네[寒食東風御柳斜]’라는 제목을 내려주고 시를 짓게 했다. 왕이 직접 점수를 매기고, 교관과 동몽에게 사찬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모두 음식을 먹고 나자 각각 종이 한 권씩을 내려주었다.⁷²⁾

1764년(영조 40) 6월 22일과 12월 16일에도 각각 경현당과 창덕궁 회정당에서 친림동몽강을 설행했다.⁷³⁾ 12월의 동몽강은 교관 李敬倫과 李沈의 전촉에 ‘興學에 마음을 기울임’, ‘마음을 다하여 동몽을 깨우침’이라는 좋은 평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상을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鄭重良, 趙丑鎭, 李應悅, 鄭甲大 등이 책을 읽거나 외우고 세손의 질문에 답했다. 혹 세손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면 영조가 질문이 너무 깊다며 끼

71)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12월 16일(무술)

72)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3월 13일(갑자)

73)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6월 22일(임인); 영조 40년 12월 16일(계사)

어 들기도 했다. 이 중 정갑대는 사인의 아들이지만, 외조가 현관이 아니어서 화길옹주와 청연군주의 간택단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⁷⁴⁾ 영조가 직접 그를 만나본 후 단자에 이름을 올리도록 했다.

1765년에는 4월, 6월, 9월에,⁷⁵⁾ 1766년에는 4월, 5월, 10월에,⁷⁶⁾ 1767년에는 3월, 6월, 7월에⁷⁷⁾, 1768년(영조44) 5월, 8월, 9월, 11월에⁷⁸⁾, 1769년(영조45) 6월, 9월에,⁷⁹⁾ 각각 친림동몽강을 열었다. 1770년(영조46) 7월에,⁸⁰⁾ 1771(영조47) 1월, 4월, 6월, 9월에,⁸¹⁾ 1772년(영조 48) 1월, 4월 5월에,⁸²⁾ 1773년(영조49) 3월, 5월, 6월, 7월, 12월에,⁸³⁾ 1774년(영조50) 6월, 12월,⁸⁴⁾ 1775년(영조51) 4월과 6월에⁸⁵⁾ 각각 친림동몽강을 실행했다. 처음에는 연 1회 정도의 행사였으나 1765년 이후로는 연 3회, 많게는 5회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1775년 6월 16일 집경당에서 열린 동몽의례가 영조대 총 41회 열린 동몽강 중 가장 마지막 동몽강이었다.

1766년 4월에는 李沈이 가르치는 具甲夢 · 金正甲 · 李金石, 鄭東淵이 가르치는 洪祖甲 · 李久松, 李敬養이 洪志興 · 李榮孫이 참여했다.⁸⁶⁾ 아이들이 소학을 읽거나 외는 것을 마치고, 글의 뜻을 묻고 대답하는 절차를 마쳤다. 이날 영조의 질문은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집안에 맡겨두지 않고 왜

74) 정갑대는 사인 鄭獬의 아들이다. 그의 외조는 신임사화 때 피화인인 김창집의 손자 金省行이다. 정갑대는 이 때 급훈단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간택되지 않았고, 결국 1766년 사도세자의 둘째 딸 淸瑤郡主와 혼인해 興恩副尉[鄭在和]가 되었다.

75)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4월 24일(기사); 영조 41년 6월 26일(신미); 영조 41년 9월 8일(신사)

76)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29일(무진); 영조 42년 5월 8일(병자); 영조 42년 10월 20일(병진)

77)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3월 18일(임오); 영조 43년 6월 4일(병신); 영조 43년 7월 11일(계유)

78) 『승정원일기』, 영조 44년 5월 8일(을미); 영조 44년 8월 8일(계해); 영조 44년 9월 16일(신축); 영조 44년 11월 14일(무술)

79)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6월 10일(경신); 영조 45년 9월 25일(갑진)

80)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7월 23일(정묘)

81)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1월 24일(병인); 영조 47년 4월 16일(병술); 영조 47년 6월 20일(기축); 영조 47년 9월 15일(임자)

82)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1월 12일(무신); 영조 48년 4월 16일(신사)_연화문; 영조 48년 5월 16일(경술)

83)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3월 7일(병신); 영조 49년 5월 16일(갑술); 영조 49년 6월 23일(신해); 영조 49년 7월 23일(경진); 영조 49년 12월 15일(기해)

84)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6월 13일(을미); 영조 50년 12월 15일(갑오)

85)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4월 13일(경인); 영조 51년 6월 16일(임진)

86)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29일(무진)

나라에서 교관을 설치해서 가르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동몽 이금석이 “나라에서 교관을 둔 것은 동몽에게 배움을 권하려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친다고 했으니 부형들이 가르치지 않고 반드시 교관에게서 배우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라고 답했다. 어린 시절부터의 배움과 동몽교육이 가문을 넘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려던 조선 동몽학의 취지, 이를 계승하려던 영조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 답변이었다. 아이들의 답에 ‘잘 말했다’고 칭찬하거나 ‘비상하구나’라며 감탄했고, ‘訓蒙’이라는 글자를 내려주고 글을 지어 내도록 했다. 동몽교육의 의미를 풀어내는 글쓰기 과제를 준 것이다. 강을 잘한 具甲夢·金定甲·李金石, 洪祖甲, 李英孫·洪志興 등에게 종이 2권, 붓 2자루, 먹 2홀을 내려주고, 李久松과 李昌大에게는 각각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동몽을 가르치는 의의에 대해 대답을 잘한 이금석과 임금 앞에서 솔직하게 말한 洪祖甲에게는 종이 1권씩을 더 내려주었다. 제술을 잘한 具甲夢은 붓 3자루, 먹 3홀을, 洪志興·洪祖甲·金定甲·李昌大·李久松·李金石은 붓 2자루, 먹 2홀, 李榮孫은 붓 1자루, 먹 1홀을 받았다.

1766년 5월 8일에는 영조가 『소학』을 읽은 지 6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서 소학강을 열면서 동몽교관이 각기 동몽들을 인솔해 들어오게 했다.⁸⁷⁾ 집경당 안에 아이들을 들어오게 한 후 기둥 바깥쪽에 둘러 앉게 했다. 영조를 필두로 영사 이하 경연관들이 10조목의 대문을 하나씩 소리내어 외어 읽었다. 한 차례가 돌아간 후 영조는 아까 조금 착오가 있었다면서 다시 전편을 암송했다. 세손에게도 대문을 읽게 한 후 문의를 문답했다. 강을 마친 후 세손이 하례를 청한 후 먼저 천세를 산호했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산호했다. 동몽교관 李敬養·鄭東淵·李沈이 李金石·安奇福·李永孫·鄭九祥·洪志興·洪益淳등과 함께 앞으로 나가 소학 첫머리의 대문을 돌아가며 읽었다.

동몽강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11, 12세가 많았지만, 6세의 어린 나이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1770년 7월 동몽교관 南殷老·林重遠이 7명의 아이

87)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8일(병자)

들을 데리고 집경당에서 열린 동몽강에 들어왔는데, 그 중 曹鴻默이라는 아이는 키가 1척에 미치지 못했는데, 앞으로 나와 소학제사를 잘 외었다. 영조는 6세의 어린 아이가 능통하게 글을 외는 것을 보고, 당나라 劉晏은 8세인데도 기이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참으로 기이하다고 칭찬했다. 시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보고 특별히 칭찬하고 동몽강이 끝난 후 내국에 보내 여러 신하들에게 6살 신동을 보여주었다. 그의 선생인 임중원은 잘 가르쳤다는 이유로 과거에 응시하도록 했다. 임중원은 당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는데, 영조가 특별히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 직장에 임용하도록 했다.⁸⁸⁾

친립동몽강을 통해 동몽학을 활성화하고, 배우는 동몽들을 격려하는 것 외에도 본래 예조 월강으로 교관들의 직무 수행을 점검하는 일도 수행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관은 추고하거나 월봉하는 방식으로 징계했다. 1767년 친립동몽강에는 교관 李敬養·鄭東淵·宋繼相·金履坤이 참여했는데, 12명의 아이들 중 通을 받은 아이가 2명, 略을 받은 아이가 1명이었다. 불통한 아이들을 가르친 교관은 종종추고하고, 가르친 아이들 모두가 불통한 교관에게는 월봉 1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친 외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관에게도 다시 동몽교관을 설치한 의의를 생각해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⁸⁹⁾

이러한 의례들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동몽학을 통한 동몽교육을 진흥하는 효과가 점차 드러났다. 서울의 동몽교육은 동몽교관을 신칙한 후에 조금 효과가 있게 되었다거나,⁹⁰⁾ 교관이 날마다 동몽들을 가르치고, 동몽들이 날마다 책을 끼고 학교에 와서 교관에게 배우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⁹¹⁾ 영조대 초반 팽배했던, 범민까지의 교육을 강조하는 동몽학에 경화의 사대부가에서 자손을 보내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차차 바뀌어 몸을 단속하고 근신하는 사람들도 학교에 보내게 되었다고 했다.⁹²⁾ 1774년(영조50) 영조는

88)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7월 23일(정묘)

89)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3월 18일(임오)

90)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9월 19일(무인); 영조 45년 6월 15일(을축) “京則童蒙教官 外則教養官 童蒙教官申飭之下今有其效.”

91)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4월 24일(기사)

동몽강을 하러 들어온 옛 신하들의 자손들에게 『소학언해』를 내려주면서 “지난 날 이름만 있고 실질은 없었는데, 지금에는 그 효험을 볼 수 있으니 그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지난날 동몽을 가르칠 때는 그 첩경으로 여겨 『사기』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여러 동몽들이 모두 『소학』을 읽으니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라고 했다. 반복된 친립동몽강 의례를 통해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동몽학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내용적으로도 조선 동몽학의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자부했던 것이다.

4. 정조대 동몽의례의 계승

영조대 凡民까지의 교육을 중시하며 41회나 시행되었던 친립동몽강 의례는 정조대로 이어졌다. 정조는 『태학지』를 편찬하면서, ‘학교’ 제도를 통해 단순 인재 교육 뿐 아니라 만민 교육의 이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선 공교육 이념을 재확인한 바 있다.⁹³⁾ 영조대의 교육 정책을 이어 학교에 나와 공부하게 하는 문화, 학교 내의 공동체 문화를 제대로 만들고자 했고, 동몽교육 정상화라는 의제도 동일하게 강조되었다. 특히 정조는 1762년 9월 영조의 친립동몽강 의례에 시좌해 참여했고,⁹⁴⁾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이 의례를 함께 하며 선왕의 동몽 교육에 대한 의지와 열의를 본 바 있었다.

1776년(정조즉위) 12월 정조는 경향 관리들의 포폄 보고서를 확인하던 중 직에 임명된 지 오래인 동몽교관 李義胤이 ‘가르친 결과를 두고 보겠다’는 전취를 받은 것을 보고, 가르치는 동몽들과 함께 입시하게 했다. 정조가 생도의 수를 물었는데, 총 4인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병들고 먼 곳에 있는 둘을 제외하면 단 두 명의 생도만 있었다. 먼저 가르치는 아이에게 진강하도록

92)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9월 8일(신사) “末世之弊 其子若孫衆童成群 恐或誤入 不欲遣于教官者多. 近者不無其效 以今日觀之 世守謹慎之人 其亦令子受學也”

93) 김지영, 『정조의 예치』, 2020, 155~197쪽.

94) 1762년 왕세손 정조가 참여한 동몽강 의례는 『일성록』에도 상세하게 수록되었다. (『일성록』, 영조 38년 9월 23일(임오))

하고, 읽은 글의 내용을 물었다. 이어서 정조는 교관의 실력을 알고 싶다고 했다. 『논어』 1장을 읽게 한 후 글의 뜻을 물었다. 문답의 내용은 자세하지 않지만 이어서 내린 전교를 볼 때 잘 답변하지는 못한 듯하다. 孝悌를 仁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삼성[三省, 세 번 반성한다]을 하루에 세 번 살핀다고 답하는 등 부실한 대답을 보고 정조는 동몽교관을 해임시키고, 이 조에서는 직에 합당한 이를 택하도록 했다.⁹⁵⁾

정조는 영조대와 마찬가지로 동몽교육을 중시했지만 재위 초반에는 영조와 같은 친립동몽강 의례는 실행하지 않았다. 정조가 직접 동몽의례를 다시 시작한 것은 1780년부터이다. 1780년(정조4) 12월 17일 정조는 동몽교관 및 훈하 동몽을 데리고 입시하게 했다.⁹⁶⁾ 다만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승정원일기』나 『일성록』에 기록되지 않았다. 1781년(정조5) 12월 1일에도 교관과 동몽을 입시하도록 했지만 역시 관련 상세한 기록은 없다.⁹⁷⁾ 1782년(정조6) 10월 24일에도 동몽교관과 동몽을 들어오게 했다. 동몽교관 羅烈과 李英裕, 鄭東教 등이 가르치는 동몽을 데리고 입시했다. 나열이 가르치는 13인, 이영유는 9인, 정동교는 13인이었다. 成豹玆 등이 차례대로 나와서 책자를 읽었다. 이영유가 가르치는 동몽들이 제대로 답을 못해서 추고의 징계를 받았다. 이경륜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여러 해 동안 밖에 계실 때 보고 싶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자 해조에 명해서 내직으로 옮겨야겠다고 하는 등의 대화도 오갔다. 강을 마친 후에는 반과를 내려주었고, 또 과일을 품고 가게 해주었다. 순통인 아이에게는 종이 5권, 붓 5자루, 먹 5홀을 내려주었고, 통에게는 각 4, 약에게는 각 3, 조에게는 각 2개씩을 내려주었다. 입격하지 못한 동몽에게도 필묵을 직접 내려주었고, 동몽들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받았다.

흥미롭게도 1781년 12월의 창덕궁 성정각에서 열린 동몽강 의례와 이날의 동몽의례에 참여했던 아이 중 하나가 일기를 쓰듯 이 일을 기록해두었다

95) 『승정원일기』, 즉위년 12월 15일(계축)

96) 『승정원일기』, 정조 4년 12월 17일(신유)

97) 『승정원일기』, 정조 5년 12월 1일(기사)

가, 자신의 문집 안에 편입시켰다. 아이 때 쓴 글이라 소략하지만, 그대로 문집에 수록한다는 소지도 붙였다.⁹⁸⁾ 그 아이가 쓴 글이 이 날 동몽의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하므로, 전체를 인용해보겠다. 먼저 1781년 12월 1일에 있었던 동몽의례의 내용이다.

상 5년 신축 12월 초1일에 동몽교관에게 동몽을 인솔하여 오도록 하셨다. 신이 8세의 어린 아이로 교관 鄭東敎의 훈하에 선발되어 성정각에 입시켰다. 임금께서 좌답에 임어하셔서 동몽들을 차례로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 신의 차례가 되었다. 임금께서 네가 누구냐 물으셨고 신이 대답하기를 홍명손입니다. 네 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으시니 신이 대답하지 못했다. 연신이 대답하기를 홍모(홍양호)의 손자로 그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상께서 나이는 몇이냐고 하셨고 신은 8세라고 했다. 연신이 “(이 아이가) 문제가 있으니 관방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관방을 네 능히 아느냐, 상신은 몇 명이냐” 물으셨고, 신이 “3인입니다” 했다. “어떻게 3인이냐” 하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상입니다”라고 했다. 상이 웃으시며 과연 그렇다고 하셨다. 이어서 강소로 나아가 책을 읽으라 하셨다. 신이 『史略』 제1권 춘추조기를 읽으니 ‘純通’으로써 2등을 매기셨다. 이어 시를 지으라 명하시니 신이 5언 2구를 적었고, 연신이 ‘二下’를 매겼다. 상으로 『팔자백선』 한질과 장지 1속, 백지 2속, 필 2자루, 먹 2봉을 받았다. 또 五子香 1자루를 받았다. 답전에서 음식을 배부셔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절하고 받아 배불리 먹고 물러나왔다.⁹⁹⁾

이 홍명손이라는 아이는 현종대 명신인 洪敬謨이다. 8살에 동몽교관 정동교의 학생으로 친림동몽강에 참여한 것이다.¹⁰⁰⁾ 홍경모는 어린 시절부터

98) 『冠巖全書』 13책, 記, 「誠正閣進講記」 “이는 입인년에 기록한 것이다. 접견할 때와 진강할 때 기록할만한 것이 여기에서 그친 것은 아니지만, 어리고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어서 단지 몇 줄을 기록했을 뿐이다. 죽히 남에게 보일 것이 없는데도 덮어 두지 않고 남긴 것은 동자으로써 가까이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것이 영예롭기 때문이다.”

99) 『冠巖全書』 13책, 記, 「誠正閣進講記」

100) 정동교는 1779년 12월 12일 동몽교관에 임명되었고, 1782년 6월 20일에 중부도사, 7월 12일에 공조좌랑, 10월 17일에 호조좌랑, 1783년 장원별제, 충훈부도사 등을 지내고, 1783년 6월 24일 창녕현감이 되었다.

역사를 좋아했다고 하는데,¹⁰¹⁾ 이 동몽강에서도 『사략』을 진강했다. 8세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 강과 제술에서 받은 성적, 상으로 받은 책과 상품, 왕이 배푼 음식을 배불리 먹은 일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어린 홍경모는 다음 해 10월의 동몽강에도 참여했는데, 바로 전달에 원자가 탄생한 것을 기뻐해서 동몽강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그 내력을 설명했다.

이듬해 임인 9월에 원자가 탄생하여 임금께서 매우 기뻐하였다. 10월 24일에 동몽들을 불러 오게 했는데 교관 羅烈, 李英裕, 鄭東教가 각각 훈하 동몽들을 데리고 예견했다. 상께서 성정각에 임어하셔서 입시를 명하셨다. 신이 정동교 훈하로써 따라 들어갔다. “훈하가 각 몇 명이나” 나열이 “신의 훈하는 단지 13인입니다”, 영유는 “신의 훈하는 9인입니다”, 동교는 “신의 훈하도 역시 13인입니다.” 개강하라고 하셔서 성표돌 등이 차례로 진강했다. 영유의 훈하가 진강하게 되었을 때 상께서 “교관이 능히 공부를 권했으면 어찌 이와 같을꼬? 교관을 추고하라”고 하셨다. 동교 훈하 차례가 되었다. 임금께서 천신에게 “네 할아버지가 멀리 가시면 슬픈 마음이 들지 않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슬픈 마음이 듭니다.”라고 답했다. 그 때 할아버지께서 동지부사로 부연하셨기 때문이다. 이어 『효경』 제1장을 진강했다. 읽기를 마치자 임금께서 “중니는 누구냐”. 대답하기를 “공자입니다.” “증삼은 누구냐.” “공자의 제자입니다.”라고 답했다. 상께서 “문의를 잘 대답했으니 순통이다.”라 하시고 순통으로써 1등을 매기셨다. 임금께서 순통은 종이 다섯 묶음, 붓 다섯자루, 먹 5홀, 통은 종이 네 묶음, 붓 네자루, 먹 4홀, 약은 종이 3속, 필 3자루, 먹 3홀, 조지 2속, 필 2자루, 먹 2홀을 사급하고, 미입격 동몽에게도 역시 필묵을 주라고 하시고는 답전 앞에서 반사하라고 명하시니 동몽배들이 차례로 꿇수하였다. 상께서 평안도 도과 시관은 춘당대에 와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朱輪小車를 타고 안에서 출발하시고 동몽에게 명하여 뒤를 따르도록 하셨다. 상께서 날이 조금 추우니 홍명손에게 額掩을 주라고 하였고, 사알이 표피액염을 머리

101) 강석화, 「관암 홍경모의 학문과 사상」,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2011.

에 씌워주었다. 영화당에 이르렀을 때 반과를 내리시고, 또 과일을 품고 연못과 나무 사이에서 자유롭게 감상하라고 하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물러나 돌아왔다. 신 홍명손이 삼가 기록하다.

위 기록에는 3인의 동몽교관과 그 훈하 동몽들이 성정각에 입시한 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다. 동몽교관 이영유가 추고를 받은 일도 『승정원일기』 기록과 일치한다. 원자가 탄생한 후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이 더했는지, 정조는 여러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멀리 떨어졌을 때 슬픈 마음에 대해 물었던 듯하다. 정원일기에서는 이경륜의 아들에게 물었다고 했는데, 홍경모 역시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물론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홍경모는 자기 할아버지가 사신으로 북경에 가셨던 것 때문에 이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효경』 강을 마친 후 홍경모는 최고 등급의 성적을 받았고, 전 해보다 훨씬 많은 상품을 받았다. 『승정원일기』에는 성정각에서 반과를 내린 것으로 기록했는데, 홍경모는 동몽강을 모두 마친 후에 왕을 따라 춘당대로 갔고, 영화당에 이르렀을 때 받은 것으로 기록했다. 아마 홍경모의 기록이 더 맞을 것이다. 날이 춥다고 액엄을 주라고 하셔서 내시가 표피액엄을 머리에 씌워주었다고도 했다.

정조는 이 날 강을 마친 후 정동교 훈하의 동몽들은 모두 사환가의 자제들이어서인지 아뢰는 것이 분명하다며 감상을 말했다. 이 아이들 중 몇 명이 한림, 주서가 되고 몇 명이 공경이 될 지는 모르지만 가히 ‘작은 조정’이라 할 만하다고 칭찬했다.¹⁰²⁾ 이에 따르면 다른 두 명의 교관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는 사환가 자제가 아닌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786년(정조10) 1월 중희당에서 친립동몽강이 다시 열렸다. 동몽교관 金正淳, 成鼎柱, 李東野, 趙鎮坤 등이 동몽 74여명을 인솔해서 입시했다. 앞서 열렸던 동몽강에 많아도 30~40여명 정도가 참여한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아이들이 들어온 것이다. 그 중에는 각신가의 동몽들이 포함되어 있었

102) 『승정원일기』, 정조 6년 10월 24일(정해) 28/28.

는데, 정조가 그들에게 고관이 되어 호명하고 찌를 들도록 했다. 아이들은 각자 앞으로 나와 배운 책을 읽었다. 종이 위에 성명을 열서한 후 찌를 그 이름 아래에 걸어두고 성적 차례에 따라 시상했다. 또 아이들에게 음식을 내려 주었는데, 종이를 따로 주어서 남은 음식을 싸서 소매에 넣어 돌아가게 했다. 여러 아이들이 서로 달려들어 가져가려 하는 바람에 음식이 흩어졌다. 103) 『일성록』에는 이 날 동몽강에 참여한 아이들의 이름, 나이, 부조 성명, 받은 성적을 모두 기록했다. 동몽들의 나이는 8세~15세였다. 74명의 학생 중 부조가 전현직 관료인 아이가 40명, 유학/학생/생원/진사의 아이가 34명이었다. 104)

이렇게 정조대에도 동몽강 의례가 진행되었고, 영조대 초반에 비할 바 없이 동몽 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늘어나 성대한 동몽의례가 이루어졌음 알 수 있다. 그러나 ‘집집마다 마을마다’있는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 누구나 배우게 하는 목표는 아직 먼 곳에 있었다. 이윽후생의 정치로 향산을 너넉하게 하는 일도 해결되어야 했다. 家塾의 제도를 모방해서 설치한 동몽교관이 평상시 가르치는 아이들이 매우 적고 동몽강 때에만 아이들을 모아 응하고 있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었다. 105) 동몽강 의례가 그야말로 의례적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몽교관을 사학에 분속시켜서 사학 훈도와 번갈아 교대로 입직하게 하고, 사학에서 동몽들을 모아 가르치며, 사학 교수가 사학 합제를 할 때 동몽교관이 동몽에게 강사와 제술로 시험보인 후 시상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106) 정조는 沈挾이 올린 이같은 의견을 묘당에서 검토하게 했으나 동몽교관의 사학 분속과 별도로 시험을 보이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7) 새로 화성을 건립한 후에도 화성 土民을 가르치

103)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월 15일(경신)

104) 『일성록』, 정조 10년 1월 15일(경신)

105)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월 22일(정묘) “童蒙教官自初設置 蓋所以模倣家塾 訓迪蒙學 其法意甚美 而挽近以來 爲教官者 每當入侍之時 多率童蒙 名以訓下 及其平居 全然無事. 受學之徒 絕少 發蒙之效 未聞 名存實無 莫此爲甚 請另飭銓曹 以有文學善教誨之人 隨窠擇差 悉心訓導 俾有實效.”

106) 『일성록』, 정조 12년 11월 3일(신유)

107) 『일성록』, 정조 13년 4월 20일(병오)

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상소가 있었지만, 교관 자리를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이 어렵고, 제대로 된 유현을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¹⁰⁸⁾ 범민까지 포괄하는 교육이라는 이상과 제한된 비용과 인재풀로 이상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용하기 어렵다는 현실 사이의 긴장은 지속되었다.¹⁰⁹⁾

5. 맺음말

이상에서 凡民 이상의 교육을 공교육의 목표로 삼고, 중종대 이래의 동몽학 전통을 재건하려고 실행된 영조대 동몽의례를 살펴보았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유생전강, 사학유생전강, 문신전강, 한학문신전강 등을 실행했다. 국왕이 궁궐 안으로 관련인들을 불러 강경이나 제술로 시험했다. 조정에 들어와 있는 인재들과 자라나는 인재들의 실상을 확인하는 동안 동몽 교육이 부진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 경연 중에 경전 상의 소학[소학교] 제도에 대해 논하면서 이른 시기부터 교육하는 제도를 갖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말했지만, 활발한 동몽교육의 기억은 17세기 후반에서 멈춰 있었다. 한사람의 동몽교관이 가르치는 학생의 수도 20명 미만으로 내려가선 안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지만, 각 동몽교관들이 가르치는 학생 수는 3~15명에 불과했다. 동몽교관은 6품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만 여겨지는데, 조정의 제도적 점검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3개월 임기 동안 생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녹을 받다가 다른 직으로 옮긴다는 상황이 반복해서 보고되었다.

영조는 우선 조종 법제인 동몽예강 복구를 시도했다. 동몽예강은 동몽교관이 실행하는 아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동몽교관들이 가르치는 아동들과 함께 예조에 오면, 배강과 제술을 통해 아동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1743년(영조19) 3월 동몽예강을 한달에 한번씩

108) 『일성록』, 정조 19년 6월 3일(임오)

109)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동몽학을 사학 안에 두었다. 19세기 전반기 여러 동몽교육 방식의 경쟁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매달 초에 예강을 행하고 월말에 실적을 아뢰도록 했다. 19년 3월 이후로 동몽예강 실행 여부와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가 매번 이루어졌고, 『승정원일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강 실행 사실을 보고하게 했음에도 예강은 당상 유고나 동몽교관 신병 등의 사유로 종종 중단되었거나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예강 정례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고, 영조가 선택한 것은 친림동몽강이었다. 친림동몽강은 1758년(영조34) 2월 24일 거러청에서 처음 실행되었다. 동몽교관 안중무와 한경의 학생들인 李彦燾의 아들, 安氏의 아들, 李在海의 아들, 李哥의 아들 등이 한명씩 왕의 앞으로 나아가 『대학』, 『소학』, 『통감』 등 책의 대문을 읽고, 국왕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친림동몽강은 1760년, 1761년, 1762년, 1763년, 1764년 매해 한두차례 거행되었다. 1765년에는 4월, 6월, 9월에 각각 친림동몽강을 실행했고, 1766년에도 다섯차례 동몽의례를 실시하면서 총 41회의 친림동몽강 의례를 실천했다. 이 의례들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도성 안에는 어린 생도들이 교관에게 배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교관들도 착실하게 강학을 실시하게 되었다.

영조대 凡民까지의 교육을 중시하며 실행되었던 친림동몽강 의례는 정조대로 이어졌다. 정조는 『태학지』를 편찬하면서, ‘학교’ 제도를 통해 단순 인재 교육 뿐 아니라 만민 교육의 이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선 공교육 이념을 재확인한 바 있다. 영조대의 교육 정책을 이어 학교에 나와 공부하게 하는 문화, 학교 내의 공동체 문화를 제대로 만들고자 했고, 동몽교육 정상화라는 의제도 동일하게 강조되었다. 영조대 후반처럼 한 해에 여러 차례 거행한 것은 아니지만, 동몽 의례를 여러 차례 거행하며 동몽교육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영·정조대의 동몽 의례는 멀게는 중종대의 지치주의 교육론, 가깝게는 양난 이후 선조대 이래의 교육개혁 어젠다들을 재확인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凡民까지 포괄하는 교육이라는 이상과, 제한된 비용과 인재풀로 이상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용하기 어렵다는 현실 사이의 긴장은 지속되었지만, 교육 입국의 이상은 포기되지 않은 채 19세기의 과제로 남겨졌다.

■ 참고문헌

- 고지마 쓰요시, 신현승 역, 『사대부의 시대』, 동아시아, 1999.
- _____, 신현승 역, 『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2004.
- 김문식, 「영조의 제왕학과 어제자성편」, 『장서각』 27, 2012.
- 김지영,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 김항수, 「16세기 후반 사림의 경세론 - 성리학적 학문체계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 사상과 문화』 6, 1999.
- 김 호, 「다산 정약옹의 ‘민주’ 기획」, 『다산과 현대』 6, 2013.
- 여영기, 「동몽예강등록과 계해년 동몽예강절목의 재구성」, 『교육사학연구』 23, 2013.
- _____, 「정치와 교육의 공동이념, 화민성숙」, 『교육사학연구』 24, 2014.
- 유승원, 『사대부시대의 사회사』, 역사비평사, 2020.
- 윤병희, 「조선 중종기 사풍과 소학, 신진사류들의 도덕정치 구현과 관련하여」, 『역사학보』 103, 1984.
- 윤인숙, 「소학의 성격과 정치론, 그 적용 - 조선전기 사림파의 정치이론과 적용」, 『사림』 35, 2010.
- _____, 「16세기 소학 이해의 사회정치적 의미와 대중화」, 『동학어문학』 58, 2012.
- _____, 『조선전기의 사림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6.
- 윤 정, 「숙종~영조대의 세자 교육과 소학」, 『규장각』 27, 2015.
- _____, 「영조의 세손 교육과 왕통 전수 - 대학의 활용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58, 2015.
- 이정민, 「조선시대의 소학 이해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18세기 국왕의 『소학』 교육 강화와 성격」, 『한국계보연구』 6, 2016.
- 이태진,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16세기의 경제변동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4, 1983.
- _____, 「민본의식의 변천과 18세기 민국이념의 대두」, 『국가이념과 대외인식』, 아연출판부, 2002.
- 이태진·김백철 엮음,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태학사, 2011.
-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2.
- 정호훈, 「조선후기 소학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한국사학보』 31, 2008.
- _____, 『조선의 소학_주석과 번역』, 소명출판, 2014.
- 태학지 번역사업회, 『국역 태학지』, 성균관, 1994.
- 피터 볼,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Ritualized Events to Promote Education for Children in King Yeongjo's Reign

Kim, Jiyo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extraordinary practices of King Yeong-jo to rebuild the educational tradition that began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when even commoners were subject to public education and education was emphasized from childhood. The memory of active childhood education in Joseon ceased in the late 17th century. Teachers who taught children had only 3-15 students to teach, and teaching was seen as a pathway to higher government positions. Because of the mix of children of different statuses, the low trust in teachers, and the fact that the children of higher status and wealthier families were ashamed to go to teachers in public schools to learn, the state-built schools stagnated. King Yeongjo first attempted to reinstate the *Dongmong-Yekang*(童蒙禮講). The *Dongmong-Yekang* was a system for checking whether the education of children practiced by instructors is going well. Each instructor would come to Department of Education(Yejo, 禮曹) with the children they taught, and they would be tested on memorization and writing. Even after the restoration of the *Yekang*, the negative atmosphere toward state-run children's schools did not improve, so Yeongjo held public classes with teachers and children inside the palace. A total of 41 ceremonies were held between 1757 and 1775. The special ceremonies led by the king gave special significance to Education for Children, creating an atmosphere where young students would go to Dongmong instructors to learn. King Yeongjo's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NU

rituals to promote children's education continue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Although many commoners were still uneducated, the ideal of enrollment to educate all the people for the betterment of society and the nation was not abandoned and remained a challenge for the Joseon people in the 19th century.

Key words: Education for Children, Public education, Instructors who taught children (童蒙教官), *Dongmong-Yekang*(童蒙禮講), Public classes with teachers and children inside the palace(親臨童蒙講), Education for the people